

월요 광장

이름이란 무엇인가?



김우항
이화여대 석좌교수

모임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에서 때로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없지 않다. 참석했던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화제는 어느 누가 얼마나 유명한 인사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잊히지 않는 말은 “세상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가 하는 것일 뿐이다. 유명한 수학자라도 참으로 그 유명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수학의 경계 안에서이다.

크고 작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가족이 된 사람은 누구나 유명하다. 또는 유명무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우리 관습에서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이름을 의식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꺼

림칙한 일이어서 이름의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

동네에는 쌀가게가 있고, 채소가게가 있고, 이발소가 있고, 문방구가 있고, 서로 안면이 있는 가게들이 있다. 동네가 커지면, 가게들 가운데 조금 더 유명한 가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가게가 생긴다. 병이 나면, 유명한 의원이 누구지 하고 묻게 된다. 물론 이것은 주민보다는 낯선 곳에서 그 고장을 찾은 사람이 묻게 되는 질문이다.

세상이 커지고, 추상화됨에 따라 삶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계가 없는 이름들이 중요해진다. 삶의 지도가 불분명한 공간에서, 언제 누가 유용할지 모르니 유명한 이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름은 무조건 나고 볼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된다.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로 ‘당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이 있었다. 모델이 될 생각으로 뉴욕에 왔다가 직장으로 구하지 못하고 헤매던 여주인공은 어떻게든지 이름을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여성은 시내 여러 군데의 광고판을 사서, 아무 설명 없이 자기 이름을 크게 적어 놓는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로부터 삶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유명하다고 들을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유명하지요?”하고 묻는다. 이에 대한 우스개 대답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하지요”이다. 위의 할리우드 영화는 유명한 것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싸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고,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지난 13일에는 우리에게도 더러는 알려져져 있는 엘튼 존과 버니 토핀이 ‘유명가사 작곡가 전시관’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그것도 본인들에게, 또 그 자체로 중요한 사건이겠지만, 국외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세르즈 아로쉬와 데이비드 J. 와인랜드가 양자물리학 분야의 새로운 실험으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중요한 업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보통사람에게는 그 업적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바 있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칩센티미하이이 교수는 대부분의 수상자가 상보다 연구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한 일 있다. 그들에게 유명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얼마 전 나는 임시 준비생은 기필코 서울대를 지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다. 유명하다는 것 이외에 지망자는 서울대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오래 전 나는 한 미국인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동안 이런저런 유명 무명의 대학을 순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본인은 예외 대학을 나왔고, 아들로 거기에 지원서를 낼 생각이었지만, 우선 아들로 하여금 대학의 환경 등이 마음에 드는가, 어떠한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정보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세상이다. 내가 접하는 정보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허무하고 실질 정저의 경우, 구호와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잠미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나의 삶은 넓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가져야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오늘날의 명품 시장은 이 한계를 생각해볼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진정한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가능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

社說

문화전당 콘텐츠 지역민 의견도 수렴하라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학계 인사 105명이 참여해 구상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역민들의 지혜를 결집한 콘텐츠안 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 적극 환영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이 지난 20일 공개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방안’에 따르면 크게 문화전당을 지시 전문가들만의 공간이 아닌 범아시아 시민공동체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문화 창의산업을 일으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문화전당 5개 연 건물에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과 유네스코 문화관련 기구를 유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마련한 기존 문화전당 콘텐츠 계획을 보완,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원포럼 콘텐츠안 이 나오게 된 배경은 유진룡 문화부 장관이 최근 “광주지역에서 제시한 콘텐츠를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데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엔 참여한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의사도 꼭꼭 반영하고,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국립으로 운영되는 문화전당이라고는 하지만 지역민과 유리된 전당 안인 걸 대대기에 불과하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아우르면서 광주의 삶과 정서를 녹여낸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부도 유 장관이 지역의 콘텐츠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식에서 벗어나 문화전당을 ‘문화창작 공장’으로서 문화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콘텐츠안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광주 문화수도 성공의 견인차가 될 문화전당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반민주적’ 박 보훈처장 즉각 사퇴시켜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아온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번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박 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답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해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질책을 받았다.

그는 “우리 보훈단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단체에서 민중의례용으로 사용하는 노래를 정부기관에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모든 참석자가 의무적으로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이 노래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박 처장이 이날 밝힌 내용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보훈단체로 등록돼 있는 5·18단체는 지금까지 오월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적이 없고, 묵념을 생략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특정단체가 자체적으로 한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5·18 기념식에 덧씌워 호도하는 건 보훈처장으로서 함량 미달이다.

박 처장의 발언은 5·18 역사의 훼손이자 또다른 국론 분열의 촉매가 아닐 수 없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조롱하듯 크게 웃고, 분개한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고성까지 오갔더니 이를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반민주적 처신과 역사인식에 비추어 정부가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천명해 바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문제 삼아 소모적 논쟁과 국론을 분열시킨 그는 박근혜 정부에도 누가 될 뿐이다.

박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반민주적 인사를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그건 국민통합은 물론 순국선열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법조칼럼

더 이상의 ‘장발장’은 없어야 한다



배석기
광주지법 공판부 검사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작품 ‘레미제라블’은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원작 내용에 의하면, 혼자된 누나와 일곱 조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장발장은 겨울에 일거리

가 없어 가족들과 함께 굶고 있다가 빵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조카들에게 먹일 빵 한 개를 훔쳤고 이로 인하여 5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감옥살이 중 누나와 조카들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는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한 형이 추가되어 결국 19년간의 긴 감옥살이를 하였다.

1882년 출간된 레미제라블은 원래 뜻 그대로를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1914년 흥행회가 초역해 청춘지에 첫 소개할 당시 ‘너 참 불쌍타’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고 하는데, 마음에 절절하게 와 닿는 번역이다.

검찰은 타인의 잘못을 가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단죄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검사

로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장발장처럼 불쌍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쓰람기가 그지없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이나 사회에서 격리하는 구속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선처하여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대개는 뭔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나 부족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부족한

을 감수하거나 어떻게든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렵고 팍팍해 질 것이라고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걱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은 임시방편으로 그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미래와 복지, 민생 등을 화두로 질사는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나 행복타’라고 말하는 국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기고

물과 사람이 어우러진 세상



안규자
장흥군 주민복지과장

오늘도 퇴근 후 어느 때처럼 탐진강변으로 갔다. 걷기 운동코스로는 그만한 장소가 달리 없지 않다. 강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물론 절로 연꽃이 솟아나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요즘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갈 정도이지만 한겨울에는 혼자서 거닐 때도 많았다.

강변 따라 물길 따라 걷다 보면 노자의 도덕경 8장이 어느새 입안에 맴을 돌았다. 노자는 ‘수선 이만물 이부정(水善利物而不爭)’을 설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도 다툼이 없어 서로 앞서려 경쟁하지 않고, 이어져 흐르며 제가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도 물은 그것이 자기의 공이라고 우기며 앞자리를 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탐진강은 전남의 3대강으로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궁성산 성터섬에서 발원하여 장흥때까지 탐진천이라는 이름으로 흐르다가 월출산 담빛에 젖어 달려온 금강과 장흥읍에서 합류하여 장흥읍 시가지를 관통하며 유유히 흘러, 강진 구강포 앞을 지나 남해바다로 흘러드는 강이다.

이 지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고싸움, 줄다리기, 정월 대보름 행사 등이 탐진강변에서 열렸다. 하지만 많은 비로 강물이 넘칠 때와 가뭄으로 강바닥이 허얇게 드러날 때는 축제의 운치가 덜하였을 터, 2006년 장흥읍이 건설 이후부터는 K-water에서 사시사철 딱 2만cc의 물을 흘려보내 줌으로써 장흥군에서는 대한민국 전남단 물축제를 탄생시켰다.

1급 자연수와 치유의 숲, 바른 먹거리 등 세 가지 있는 것과 입장료, 바가지 요금, 불패지수 등 세 가지 없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 2012년도에는 축제 시작 5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예초 3일간이었던 축제는 축제장 주변 음식점들이 발디딜 틈 없는 축제 인파로 넘쳐나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일간으로 연장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목포시, 완도군 등 서남부 9개 시군에 식수를 제공해주기 위해 장흥읍이 건설되면서 대부분의 수물 대상 지역민들은 물에 잠길 때마다 장흥읍으로 연원을 슬 먹는 버릇이 있었지만 물속에 잠긴 정들었던 집을 들여다보며 선산 언저리에서라도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수물민들은 2007년 12월 1일 이탈리아 치파슬로(Cittaslow) 연맹으로부터 이 지역을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아낸 뒤 천 여 명의 주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유기농 밥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웰빙

청정지역으로 변모시켰다.

장흥읍은 총 저수용량 191백만㎥의 거대한 인공호수에 천혜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무공해 수력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댐 축조 당시 인공호수로부터 질은 안개가 형성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동 수변구역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등의 온갖 이야기들도 이제는 추억 속에 묻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K-water가 펼쳐가는 지역민 사랑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평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저소득층 난방비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다 최근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노래교실로 이어졌고 이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를 위한 거금의 기탁금까지 쾌척해 주었다. 함께 나누는 물길 속에 물과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더 여유로운 세상을 향해 K-water와 이 고장 주민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것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수다의 내용이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고 하다 보니 수다 중 상당부분이 조작적이거나 거짓인 내용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음반이나 영화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각종 오락프로그램에서 수다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사생활을 극적으로 가공하는 연예인마저 있다.

인터넷에 가보면 그런 연예인들의 가공과 조작적인 수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놓은 네티즌들의 질타가 많이 떠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파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송사들이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며 시청자여러분이 다가가 주시기 바란다.

▲주정원·고홍근 도양읍 봉암리

無等鼓

1823년 11월, 영국 워릭셔주에 위치한 사립중학교 럭비스쿨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윌리엄 웹 엘리스라는 학생이 축구경기 도중 공을 안은 채 달려드는 상대선수들을 제치고, 골대 안으로 한달음에 내달린 것이다.

당시는 축구 규칙이 정립되지 않은 때라 손을 쓸 수도 있었지만 이런 ‘반칙’은 생소해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결국 손과 발을 모두 써야 한다는 지지파는 럭비로, 발만 써야 한다는 반대파는 축구로 서로 나뉘었다.

이후 1904년 국제 축구연맹(FIFA)이 창립되고, 1930년 남미 우루과이에서 첫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면서 축구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게 됐다.

우리나라 근대 축구의 태동도 영국과 연인이 있다. 1882년 6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군함 플라임 피시호가 제주포(인천)항에 입항해 맞을 내렸다. 수병들은 선상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연안 부두에서 수시로 볼을 쳤다. 이를 신기하게 지켜보던 부둣가 아이들은 어느 날 수병들과 함

께 공을 차기 시작했다.

한국축구 대표팀이 지난 18일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차전 최종전에서 이란에 0-1로 패배했지만 월드컵 8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또한 1983년 5개 팀이 참가해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 프로축구가 지난 20일 3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21일 열린 K리그 클래식(목일 FC 아우크스부르크)의 예기는 올림을 준다. “늘 한국축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한다. K리그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함을 달래기 위해 연안 부두에서 수시로 볼을 쳤다. 이를 신기하게 지켜보던 부둣가 아이들은 어느 날 수병들과 함

월드컵과 K리그



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구자철(목일 FC 아우크스부르크)의 얘기는 올림을 준다. “늘 한국축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한다. K리그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함을 달래기 위해 연안 부두에서 수시로 볼을 쳤다. 이를 신기하게 지켜보던 부둣가 아이들은 어느 날 수병들과 함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연예인들 조작된 수다 남발...시청료 아깝다

요즘 TV를 켜면 연예인 신변잡기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대세다. 아이들까지도 앉아서 박장대소하며 보고 듣는다.

요즘 소위 잘나가는 연예인 신변잡기 프로그램은 대부분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 방식인데 포맷은 비슷비슷하다. 내 얘기이든 남의 얘기이든 알려지지 않은 흥미거리를 들춰내 관심을 끌어 모은다.

수다로 풀어놓는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사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다가 등장하지 않는 오락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다.

대부분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연예인들이 나와 특정 주제나 신변잡기에 관련된 수다를 늘어놓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는데 요즘은 아예 일반인들까지 출연시켜 함께 수다를 풀어놓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에피소드 형식의 흥미 위주 신변잡기는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에깃거리를 마치 자기 일인 양 가공해서 하는 경우가 적잖다.

듣기에 다소 민망한 내용이라도 시청자들

은 연예인들의 비밀스런 얘기에 탄성을 지르고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올라간다. 연예인들이 시시결렬한 수다를 떠는 프로를 보고 노라면 정말 내가 낸 시청료가 아깝다. 그리고 전파라는 중요한 공공의 재산을 저런 사람들의 잡다한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연예인의 수다를 유심히 보면 그 내용들이 전편일률적으로 연예인의 슬 먹는 버릇에서부터 열애 관계, 성형, 스킨십, 재무관계, 가족들의 습관, 잠자리 버릇, 황당한 실수담 등 신변잡기투성이다.

거기다가 광채있었다든가, 또는 그때 그런 게 큰 유행이나 됐던 것처럼 아니면 그런 게 큰 낭만이며 마치 영웅담처럼 늘어놓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복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다 지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